



박태원 교수의

### 불교로 보는 인생

폭설로 교통 대란이 빚어지던 연초, 서울에 있던 나도 발이 묶였다. 공항은 제 때 출발하지 못하는 승객들의 안타까운 마음들로 뒤숭숭하였다. 아나나 다를까, 이곳 저곳에서 거친 고함들이 터지고 있었다. 고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결핍으로 비판받은 하던 국내 항공사들이었지만, 이 날은 상황이 달랐다. 서울로 이사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끊겼다. 서울 가기 전 한탄이라도 보고싶어 하루 종일 대문 소리에 귀를 세웠다. 허사였다. 마지막날 어머니 등에 업혀 신자로 위에 올랐을 때, 집이 안보일 때까지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살폈다. 끝내 그리운 얼굴 눈에 못 담은 어린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나한테 병이 옮겨와서 하루가 나를 만나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을 까야!" - 눈물이 고여 소년은 급히 엄마 등에 얼굴을 묻고.

를 기다렸다. 잡는 족족 옆에 있는 물새 초롱에 먹이로 넣는 것을 보고는, 낚시꾼 물새 새초롱을 물 속에 담갔다가 잡은 고기처럼 집어 올려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나를 기쁘게 해 주었다. 낚시꾼이 목덜미 끌려 올라온 그를 보고, 어린 마음에 정말 눈물겨운 우애를 느꼈다. 서울로 이사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끊겼다. 서울 가기 전 한탄이라도 보고싶어 하루 종일 대문 소리에 귀를 세웠다. 허사였다. 마지막날 어머니 등에 업혀 신자로 위에 올랐을 때, 집이 안보일 때까지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살폈다. 끝내 그리운 얼굴 눈에 못 담은 어린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나한테 병이 옮겨와서 하루가 나를 만나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을 까야!" - 눈물이 고여 소년은 급히 엄마 등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시작된 콤플렉스는 질기게 따라다녔다. 분발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괴양 반응, 피해 의식, 허세, 경직 등 후유증의 함정은 널리

5살 때 나는 전신이 마비되며 죽을 직전까지 몰렸었다. 긴장으로 팽팽한 삶의 고비들은 선명한 기억을 남기는 법. 그래서인지 5살 그 해의 일들이 아직도 끊기지 않는 필멸의

## 세상사 간절한 의문 '일념으로 참구'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의심을 일으켜서 정진하는 화두선은 최상의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화두를 들고 있는 대정스님.

'화두(話頭)'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참선 공부를 하는 불자라면 한번쯤 품어왔을 의문이다. 화두는 일념으로 간절히 참구(參究)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요령이 없다고 오랫동안 참선을 해온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언한다.

'화두 수행법'에 대해 헤쳐 스님(금강선원장)이 설명해 주었다.

### 의문자체가 분발심

-화두란 무엇인지요.

▲화두란 간단히 말해 '말보다 앞서 가는 것' 즉 '언어 이전의 소식'이란 뜻입니다. 흔히 책의 머리말을 '서두(序頭)'라 하듯 참된 도를 밝힌 말 이전의 일 때까지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살폈다. 끝내 그리운 얼굴 눈에 못 담은 어린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나한테 병이 옮겨와서 하루가 나를 만나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을 까야!" - 눈물이 고여 소년은 급히 엄마 등에 얼굴을 묻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갖고는 있지만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풀어 나가는 방법은 매 한가지이므로 여러 가지 의문 중 한가지를 택해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참구하면 나머지 는 관심만 가져도 자연스레 풀리게 되지요. 이때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분발심입니다. 이러한 분발심을 이루기 위해 화두



### 참불자의 길

### 참선③-화두 드는법



◇혜거스님

를 드는 겁니다.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화두는 세상사에 대한 간절한 의문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일에 대한 관심과 의문이 없으면 화두를 들 수 없지요. 따라서 간절함 그 자체가 바로 방법이지 화두를 드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주인은 얼마나 간절하게 불을 꺼야겠다는 일념이 들겠어요. 것처럼 불을 꺼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없이는 불을 끌 수 없듯이 화두도 마찬가지로 화두를 들려면 우선 대사에 간절함 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막상 화두를 잡아도 쉽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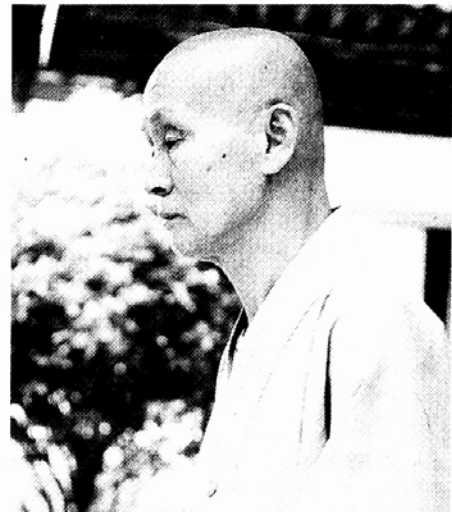
화두를 들 때 정신집중이 안되면 우선 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응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꽃은 어떻게 필까'를 화두로 삼았다면 꽃이 피어 나는 과정을 간절하게 눈으로 응시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응시하다

보면 의식과 순환 작용이 정지되며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몇날 며칠이 지나도 순환 기능이 정지돼 대소변을 안봐도 되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두 삼매의 경지입니다. -화두는 어떻게 받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화두 즉 공안이 보통 1800여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찰 수련회를 가보면 보통 '이렇고'나 '무(無)' 등 널리 알려진 화두를 지도법사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내려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집단에게 내려지는 화두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간절하게 참구하고자 하는 의문도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자 자신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수행상담을 통해 선지식들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근기 맞게 화두받아야

-명상과 참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명상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의문이 이어지고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므로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화두를 드는 참선은 관념에서 벗어나고 전체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명상과 다릅니다. 오직 하나의 의문이 화두가 되어서 일념으로 참구하고 또 참구하여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화두가 타파되고 신심이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삼매입니다. 삼매에 들면 의식과 순환기능이 멈춰 삼각기 관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김주일 기자

## 콤플렉스로부터의 해방

로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 때의 생각, 느낌, 감상이 여제 일처럼 생생하다.

종합병원이 포기한 나를 집안의 현의사 어른이 기사화생시켰다. 한 첩 한 첩 쓸 때마다 기적같이 풀려 나가는 마비를 보며, 나는 삼척 죽서루 앞마당에서 다시 뛰어 놀 생각에 들떴다. 완전히 치유되는 못한 채 고향으로 내려 온 후 서술로 이 사갈 때까지 겪은 일년 여의 경험들은 고운 동화의 채색으로 내 정서 깊숙이 깔려 있다. 내 삶에 질긴 콤플렉스가 뿌리내린,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아릿하게 고운 빛으로 각인된 그 시절.

다시 걸음마부터 익혀 나가는 나에게 어머니는 친구 하나를 붙여주셨다. 한글을 깨치고 있었으니 아마 나보다 두, 세 살 위인 동네 형이었다. 세 살 자전거 태우고 내가 가고 싶다는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다 주었고, 한 번도 짜증 내지 않고 하루 종일 만화 책 읽어 주었다. 죽서루 앞 대오십천의 깊은 소인데 그렇게 불렀다에서 고기 잡는 것 보고 싶단니까, 그 험한 벼랑 길 내려가 낚시꾼 옆에 붙어 고기 낚아 올리기

### 병뿌리 다스리려면

### 부처님 처방전이라야

있었다. 족쇄를 푸는 열쇠를 손에 넣은 건 실로 행재였다. 콤플렉스의 토대를 해체시키는 공(空)의 이치, 이런 저런 콤플렉스 관념들을 흘려가는 구름처럼 지켜(행)보아 굳이 밀쳐내지도 불리지도 않게 하는 도리, 그리하여 그 콤플렉스란 놈이 머리를 들고 이리 저리 요동치다가 찾아드는 꼴을 날같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잔잔히 미소지을 수 있게 하는 희한한 공부 길 - 이 석씨 집안 가풍을 쏘이면서 비로소 콤플렉스 가 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공부 놓쳐 경계 속을 헤매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열쇠를 손에 넣으니 길 물라 답답해 하지는 않는다.

가까운 역사 경험만 하더라도 이래저래 한민족은 콤플렉스가 많다. 한 번도 짜증 내지 않고 하루 종일 만화 책 읽어 주었다. 죽서루 앞 대오십천의 깊은 소인데 그렇게 불렀다에서 고기 잡는 것 보고 싶단니까, 그 험한 벼랑 길 내려가 낚시꾼 옆에 붙어 고기 낚아 올리기

울산대 철학교 교수



《종문무고(宗門武庫)》에 보면 간화선의 제창자 대혜종교의 스승인 원오극근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계기를 묘사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 일화를 통하여 선의 깨달음에서 화두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자.

원오극근의 스승인 오조법연은 어느 날 진제형이라는 거사에게 말했다. "제형은 어떤 시절에 '소염시(小鹽詩)'를 읽어본 적이 있소? 그 시 가운데 다음 두 구절은 제법 우리 불법(佛法)과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소옥아! 소옥아! 자주 부르지만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낭군이 목소리 알아 들기를 바랄 따름이다.' 진제형은 연신 "네! '네!' 하였고 법연은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때마침 원오가 밖에서 돌아와 물었다. '스님께서 '소염시'를 인

용하여 말씀하시는데 진제형 거사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그는 소리만 알아들었을 뿐이다." "낭군이 목소리 알아들기를 바랄 뿐이라면, 그가 이미 그 소리를 알아들었는데 어찌하여 옳지 않습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 '악!' 원오는 이 말에 문득 눈이 밝아 있었다. 방문을 나서니 닭이 회에 날아올라 날개를 치며 우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다시 혼자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소리가 아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법연을 찾아가 인가를 받았다.

'소염시'는 당나라 현종이 총애했던 양귀비를 소재로 한 시다. 낭군의 정이 그림지만 낭군을 바로 불러올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 없는 몸종 소옥이를 부름으로써 낭군에게 자기 목소리를 들려

## 의미 이전 자성의 움직임은 보라

### 43 선과 언어 (7)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주어 자신의 심정을 알아채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내용이다. 여기서 법연이 잘 살펴보라고 하는 부분은, '소옥아! 소옥아!' 하고 부를 때 낭군이 알아듣는 것은 '소옥'이라는 의미관념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즉 말을 듣고서 그 말의 의미관념을 따라가지 않고, 현상으로서의 그 말이 생겨나는 근원을 파악함이 곧 불법(佛法)이라는 것이 법연의 가르침이다. 법연의 이 말을 듣고 원오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알아들었으면 된 것이 아니라' 고 물은 것이고, 법연은 원오가 견성하는 길을 찾았다고 보고서 즉각 낭군의 정이 그림지만 낭군을 바로 불러올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 없는 몸종 소옥이를 부름으로써 낭군에게 자기 목소리를 들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졸탄동시의 한 장면이다. 원오는, '소옥아! 소옥아!' 하는 말이나 '뜰 앞의 잣나무' 하는 말이나 '악!' 하는 외침이나 '꼬끼요!' 하는 닭의 울음 등에서 동일한 그 무엇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만법(萬法)에 공통되는 그 무엇, 만법이 귀일하는 그 하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를 선불교에서는 마음(心) 혹은 자성(自性)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체험을 두고 '자성을 본다(見性)'고 말하는 것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제각기 다르다. '소옥아! 소옥아!'는 부르는 말이고, '뜰 앞의 잣나무'는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말로서, 이 둘은 소리이면서 동시에 의미를 가진 언어이다. 그러나

고함소리인 '악!'과 닭의 울음소리인 '꼬끼요!'는 의미를 가진 언어라기 보다는 단순한 소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소리'임을 알 수가 있다. '소리'란 무엇인가? '소리'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는, 의미 이전의 것이다. 즉 소리는 의미로 형성되기 이전의 자성의 움직임인 것이다.

이 까닭에 원오가 말을 듣고 말이 아니라 소리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뜻을 이해했을 때, 법연은 화두와 활(活)을 사용하여 원오의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화두는 의미있는 말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되기 이전의 자성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직지(直指)의 방편이다.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 초기 불교 교단생활

부처님 제세사와 일반 직후의 초기 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개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제 제도, 인거와 포살 및 자지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족,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통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초기 불교 교단생활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5,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만트라리의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밀교학개론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 불제 연동용 전선 (케이블)

등 간 격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 주문

시찰용 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시찰 전구

- ▶ 불제대원 교수연구, 건전지용(순광용)
- ▶ 원형 : 3W, 5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열이 낮고, 열이 잘 전하지 않으며, 불이 꺼지면 6대(혹 10대) 정도는 빛이 불타고 있고, 공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 청사초롱 및 연동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여 4월초부터는 행사, 각종 연등행사(탈춤, 탈춤, 탈춤) 등이 불이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종단행사, 초, 아롱에 적합합니다. (전등기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 5826-236 평생전화 (0502) 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 583-4023 FAX (032) 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 (031) 986-0277~8